

취업자 수 증감의 원인 및 전망

성재민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8월 취업자 수는 38만 7천 명 증가(전년동월대비)하여 고용 증가폭 확대
- ◎ 8월의 취업자 증가폭 확대는 아래와 같은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건설업, 자영업자 증가폭 확대에 힘입은 현상
 - (1) 장기·구조적 측면 : 지난 몇 년간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에 기여했던 50대 연령층 인구 증가폭 둔화(2014년까지 20만 명대 유지했으나, 이후 꾸준히 인구 증가폭 줄어 2016년 8월 116천 명 ↑)
 - (2) 최근 특징 :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시장 활력 감소
 - (3) 이번 달 특징 :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고용 증가 및 최근 몇 달간 생산활동이 크게 활발해진 건설업 취업자 증가 전환 영향으로 38만여 명의 고용 증가가 나타남
- ◎ 고용률은 61.0%로 전년동월대비 0.3% 포인트 증가(15~64세 고용률은 66.4%로 0.5% 포인트 상승)
 - 실업자 수는 99만 6천 명으로 7만 3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0.2% 포인트 상승
 - 20대는 7만 7천 명 증가하였고, 60세 이상도 25천 명 증가

- ◎ 부문별 분석을 통해 고용성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
- ◎ 연령별로 볼 때, 60세 이상 연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, 청년층 고용이 55천 명 증가
 - 이번 달에는 50대의 인구 증가폭 둔화(116천 명↑)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컸음(124천 명↑)
 - 50대 초반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2천 명 감소하였으며, 취업자 수도 24천 명 감소. 반면에 50대 후반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58천 명 증가하였으며, 취업자 수도 148천 명 증가. 전월에 비해 50대 초반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50대 후반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확대된 것임
 - 60세 이상 연령층은 취업자가 258천 명 증가하였으나, 이는 전년동월대비 474천 명 증가한 인구변화 영향
 - 20대는 음식숙박업 49천 명↑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3천 명↑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2천 명↑에 힘입어 취업자가 55천 명 증가
 - 고졸(재학, 휴학, 중퇴는 제외)은 음식숙박업(32천 명↑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15천 명↑), 제조업(24천 명↑) 등에서 약 97천 명 증가
 - 전문대 이상 졸업자(재학, 휴학, 중퇴는 제외)는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12천 명↑), 부동산 및 임대업(12천 명↑) 등에서 증가했으나, 제조업(19천 명↓), 교육서비스업(31천 명↓) 등 감소 영향으로 17천 명 취업자 수 감소
 - 30대, 40대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해 왔는데 이번 달 40대는 증가로 반전(1만 명↑)
- ◎ 30대 초반 고용률은 -1.5%포인트 감소했으며, 20대를 비롯하여 40대 이상 모두 고용률 증가
 - 남성 및 여성 모두 30~34세 고용률 감소
- ◎ 상용직 주도의 고용 증가세 지속
 - 상용직 종사자가 29만 1천 명 증가하여 여전히 고용 증가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

- 있으나, 증가폭은 2016년 들어 꾸준히 감소(2015년 하반기 521천 명 증가)
 - 임시직 9만 1천 명 증가, 일용직 6만 7천 명 감소

◎ 자영업자 증가 전환

-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 9천 명 증가하였으며,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천 명 감소.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꾸준히 감소폭을 줄이고 있음
- 무급가족종사자도 감소폭이 크게 줄어 7천 명 감소(7월에는 전년동월비 48천 명 감소)
-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통적인 형태의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(22천 명 ↑), 도소매업(18천 명 ↑) 외에도 건설업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건설업(17천 명 ↑), 부동산 및 임대업(18천 명 ↑)에서도 증가하였고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25천 명 ↑)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23천 명 ↑), 제조업(21천 명 ↑)에서도 증가
-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음식숙박업(2만 명 ↑), 도소매업(15천 명 ↑)에서 증가
- 다만, 이번 달의 자영업자 증가는 전년동월에 자영업자가 177천 명 감소했던 기저 효과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

◎ 제조업 고용은 2개월째 감소가 지속된 반면,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

- 구조조정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던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(지난달 65천 명 ↓, 이번 달 74천 명 ↓)
 - 특히 30대(102천 명 ↓)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, 40대도 6만 명 감소
 - 직업별로는 장치기계조작원(30천 명 ↓), 단순노무직(43천 명 ↓)에서 크게 감소
 - 지역별로는 조선업 고용규모가 큰 경남(-23천 명 ↓), 울산(-15천 명 ↓)에서 크게 감소
- 반면에, 서비스업은 457천 명 증가하여 2016년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(2016년 1~7월 평균 313천 명 ↑)
 - 음식숙박업(전년동월대비 103천 명 ↑)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(97천 명 ↑)을 필두

로 부동산 및 임대업(52천 명↑) 등에서 증가하였으며, 도소매업이 이번 달 들어 증가 전환(전년동월대비 15천 명 증가, 2016년 1~7월 평균 91천 명↓)된 것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확대의 주 요인임

- 음식숙박업은 주로 업종 소분류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에서 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,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메르스 기저효과로 보건업에서 고용 증가가 크게 나타난 영향임
 - 지난달부터 금융 및 보험업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. 비전속 보험 대리점업으로 불리는 GA 판매직 증가와 관련
- 올해 들어 생산활동이 크게 활발해진 건설업 취업자 수는 7월에 전년동월비 1천 명 증가한 뒤 이번 달에 71천 명↑으로 증가폭 크게 확대
- 이미 상용직은 건설생산과 동조하여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, 일용직 감소 지속 영향으로 건설업 고용은 감소하고 있었음. 이번 달에는 일용직도 증가 전환(36천 명↑)
 - 일용직은 외국인 고용의 영향 등으로 생산과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 불확실성이 있지만, 올해 하반기를 넘어 건설업은 생산이 꾸준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건설업 부문 고용도 하반기 내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가능
 - 건설업 생산 활발의 영향으로 부동산업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
 - 연관산업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업종의 고용 증가도 기대